

차범석의 『손탁호텔』과 三島由紀夫의 『鹿鳴館』에 나타난 여성상 비교 —현주실(玄珠寶)과 아키코(顯子)를 중심으로—

전수진*
99ao126@hanmail.net

<目次>

- | | |
|-----------------|------------------|
| 1. 머리말 | 4. 현주실과 아키코의 여성상 |
| 2. 선행연구 | 4.1 근대적 자의식의 측면 |
| 3. 현주실과 아키코의 위상 | 4.2 이상추구의 방향성 |
| 3.1 현주실의 위상 | 5. 맺음말 |
| 3.2 아키코의 위상 | |

主題語: 손탁호텔(Sontak Hotel), 鹿鳴館(Rokumeikan), 여성상(Female Figure), 근대적 자의식(Modern identity), 이상추구의 방향성(The direction of pursuit of ideal)

1. 머리말

한국과 일본의 개화기에는 서양 춤곡에 맞춰 댄스를 추거나 서양의 음식을 먹으며 외국사절을 접대했던 [손탁호텔]과 [鹿鳴館]이 각각 존재했다. 또한 이를 소재로 하여 실제 건물과 동명의 이름을 붙인 희곡이 한국의 차범석(車凡錫, 1924.11~2006.6)과 일본의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 1925.1~1970.11)에 의해 『손탁호텔』¹⁾, 『鹿鳴館』²⁾으로 발표되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로 각 작품의 내용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아쉽게도 국·내외에서 이 두 작품을 비교하여 논문화 한 것은 한 편도 발견하지 못했다.

차범석의 작품들을 김경옥이 분류한 3기로 나뉘었을 때 희곡 『손탁호텔』은 그의 「중반기」³⁾에

* 동의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강사

- 1) 차범석(1982) 『차범석 제4회곡집 학이여 사랑일레라』어문각, pp.51-140을 텍스트로 삼으며, 이후 작품의 인용은 텍스트 제목과 쪽수만 밝힌다.
- 2) 三島由紀夫(2006) 『鹿鳴館』新潮文庫, pp.8-100을 텍스트로 삼으며, 이후 작품의 인용은 텍스트 제목과 쪽수만 밝힌다.
- 3) 김경옥(2006) 「車凡錫 戯曲에 나타난 嚮土의 특성 연구」 동신대학교 대학원, pp.9-10 : 1955년 희곡 「밀주(密酒)」(1막 당선부터 1963년 극단 산하(山河) 이전까지의 작품 활동을 초창기(제작

해당하는 작품으로 「1976년 6월 10일 국립극장에서 이해랑의 연출」⁴⁾로 상연되었다. 이후 차범석의 희곡 『손탁호텔』은 「2005년 11월 23일에서 26일까지 해오름 극장과 이화여고 백주년 기념관에서 오페라로 공연」⁵⁾된 바 있다.

한편, 미시마 유키오의 희곡작품을 마쓰우라 다케오(松浦竹夫)가 크게 4기로 나눠 분류한 것을 살펴보면 『鹿鳴館』은 「제 1기」⁶⁾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1956년(昭和31) 12월호 『文學界』에 발표되어 문학좌의 극단창립20주년을 기념해서 같은 해 11월 27일에 초연」⁷⁾되었다. 이 작품은 극작가로서도 상당히 다작이었던 미시마 유키오의 「희곡 중에서 하나의 정점으로 칭송 받을 만한 작품」⁸⁾이고 이 작품으로 인해 극작가로서 명성을 드높일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鹿鳴館』은 같은 해 1956년(昭和31년) 1월~10월 『新潮』에 게재된 장편 『金閣寺』가 미시마 유키오를 소설가로서 자리매김 시켰다면 『鹿鳴館』은 그를 극작가로 자리매김 시킨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미시마 유키오는 『仮面の告白』(1949년:昭和24년)을 비롯해 다수의 문제작을 세상에 선보였지만, 여전히 당시 일반에게는 약간 눈에 띄는 재능을 지닌 젊은 작가 정도로 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그런 그를 대단한 천재로 깊이 각인시킨 기념비적인 작품이 소설에 있어서는 『金閣寺』였고, 희곡에 있어서는 『鹿鳴館』이었던 것이다.⁹⁾

『손탁호텔』과 『鹿鳴館』속에는 개화기에 고뇌하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예컨대 『손탁호텔』의 서재필과 손탁, 그리고 임철규와 현주실, 『鹿鳴館』의 가게야마 하루토시(影山悠敏) 백작과 가게야마 아사코(影山朝子), 기요하라 에노스케(清原永之輔), 기요하라 히사오(清原久雄), 다이토쿠지 아키코(大徳寺颯子)가 그에 해당하는 인물들이다.

논자는 이 인물들 중에서 특히 현주실(玄珠實)과 아키코(颯子)라는 여성에 주목하였다. 왜냐하면 두 인물의 여성상은 각기 한국과 일본의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는 개화기를 배경으로

극회를 중심, 1964년부터 1983년 ‘산하(山河)’ 해체 전까지의 활동을 중반기, 1984년부터 ‘산하(山河)’ 이후의 작품 활동 시기를 중반기 이후로 분류했다.

4) 차범석(1982) 『학이여 사랑일레라』(주)어문각, p.49

5) 2005.11.07일자 연합뉴스- 원로 극작가 차범석의 희곡 '손탁호텔'이 오페라로 만들어져 무대에 오른다... (중략)... 23-24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25-26일 정동 이화여고 백주년 기념관에서 초연무대를 갖는다.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차범석의 희곡 '손탁호텔'은 5막 6장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1976년 6월 이해랑 연출로 국립극장 무대에 오른 바 있다...(중략)... '손탁호텔'이 오페라로 만들어지기 이번이 처음. 2년 여의 제작 기간을 거쳐 원작자인 차범석 씨가 오페라 대본을 쓰고 이영조 씨가 작곡을, 표재순 씨가 연출을 맡았다. 5막 6장의 원작은 1시간 반 분량의 단막 오페라로 재구성됐다.

(<http://media.daum.net/entertain/enevs/view?cateid=1033&newsid=20051107063814536&p=yonhap>)

6) 越次俱子(1983) 『三島由紀夫 文學の軌跡』広論社, pp.14-15

7) 三島由紀夫(1984) 『鹿鳴館』新潮文庫, p.355

8) 渡辺美知子(2006) 「三島由紀夫의 『鹿鳴館』論」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p.4

9) 石井辰彦(1986) 「鹿鳴館-結末への里程標」(『国文学』昭和61年7月号 「いま三島由紀夫を讀む」 学燈者) p.94참조

구현되었으며 두 인물 공히 극의 흐름에 있어서 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각 희곡 작품 속에 나타난 현주실과 아키코라는 여성에 주목하여 근대적 자의식과 이상 추구의 방향성 측면에서 드러나는 여성상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먼저 차범석의 희곡 『손탁호텔』을 다룬 선행 연구로는 권순종의 「작가의 이데올로기와 역사에 대한 인식-차범석의 희곡 <학살(虐殺)의 숲>과 <손탁호텔>을 중심으로-」¹⁰⁾가 있다. 권순종은 이 논문에서 희극의 전개에 있어 역사적 사실과 허구의 변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고찰함에 따라 서재필의 선각자적 삶을 통해 과거의 역사를 다루어 현재를 반성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지향하고자 하는 비교적 정확한 작가의 역사의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논했다. 하지만 서재필과 손탁 사이의 허구적인 사랑의 개입에 대해서는 작품의 흥미를 돋구는 데에는 어느 정도 이바지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제 전달에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논했다. 그리고 김경옥은 「차범석 희곡에 나타난 향토적 특성 연구-」¹¹⁾에서 작가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삼으면서 실제 인물인 외국 여성 손탁과 서재필 사이의 허구적인 사랑, 허구적인 인물인 현주실과 임철규 사이의 사랑을 끼워 넣어 작품의 묘미를 더하고자 했다고 논했다.

한편 희곡 『鹿鳴館』의 선행 연구로는 임훈식의 「三島由紀夫의 『鹿鳴館』의 構造—その愛憎의 關係を軸として—」¹²⁾와 와타나베 미치코(渡辺美知子)의 「三島由紀夫의 『鹿鳴館』論」¹³⁾, 이시이 다쓰히코(石井辰彦)의 「『鹿鳴館』—結末への里程標—」¹⁴⁾가 있다. 임훈식은 『鹿鳴館』을 애증의 공간으로 설정하고 아사코와 기요하라 부자와의 상관관계, 히사오가 아버지에게 품은 증오의 의미, 기요하라 마음속의 애정, 가게야마에게 있어서 애정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와타나베 미치코는 『鹿鳴館』에 등장하는 인물을 음모가, 위선자, 배신자, 이상추구의 이상가, 애증갈등의 이상가로 나누어 인물을 분석하였다. 이시이 다쓰히코(石井辰彦)는 이 희곡에 등장하는 한 쌍의 연인들. 결국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연인들이 각각에

10) 권순종(2006) 「작가의 이데올로기와 역사에 대한 인식-차범석의 희곡 <학살(虐殺)의 숲>과 <손탁호텔>을 중심으로-」(무천극예술학회 『차범석 희곡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pp.149-177

11) 김경옥 앞의 논문 p.43

12) 林 薰植(1994) 「三島由紀夫의 『鹿鳴館』의 構造—その愛憎의 關係を軸として—」(『教育理論과 實踐』,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pp.201-222

13) 渡辺美知子 앞의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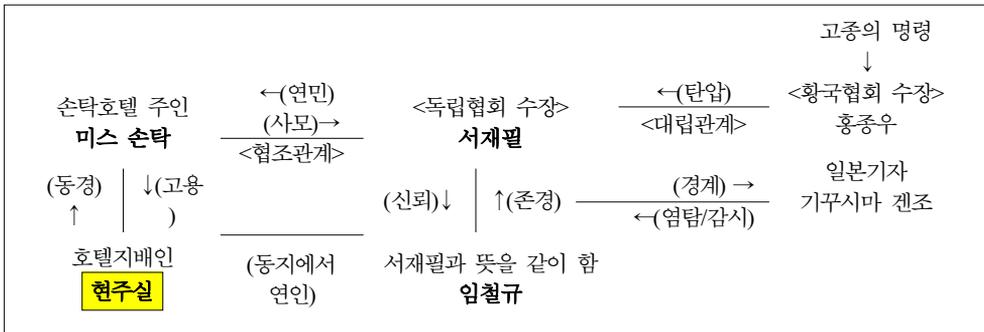
14) 石井辰彦 앞의 논문 p.97

깊어지고 있는 세계가 중요하다고 논했다. 다이토구지 후작의 딸 아키코가 깊어진 세계는 귀족사회의 가장 아름답고도 허무한 부분을 대표하는 듯 하다고 논했고, 히사오가 깊어진 세계는 우울한 젊은이의 행동 세계라 정의하였다.

이렇듯 두 작품 공히 인물 분석을 통한 선행연구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현주실과 아키코의 여성상에 대해 비교 고찰한 연구논문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따라서 희곡『손탁호텔』의 현주실과 『鹿鳴館』의 아키코를 중심으로 한 여성상 비교는 한·일 개화기 여성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3. 현주실과 아키코의 위상

3.1 현주실의 위상



희곡 『손탁호텔』은 1896년부터 1897년을 시대적 배경으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역할 비중 순으로 나열해 보면 독립운동가인 서재필과 손탁호텔의 주인인 미스 손탁, 서재필과 함께 개혁을 도모하는 임철규와 손탁호텔 지배인 현주실 순으로, 이들은 손탁호텔을 중심으로 극을 전개해 나간다. 그 밖에 고종과 이완용, 이범진을 비롯한 정부 대신들은 어전에 등장한다. 그리고 러시아인 브리네르와 미국인 모오스의 등장은 조선이 세계열강들 사이에 양보하기 아까운 먹잇감임을 잘 나타내 준다. 또 서재필과 황국협회로 맞설 홍종우, 이토 히로부미의 방을 예약하면서 조선의 어두운 미래를 암시하며 마지막에 재등장하는 일본인 기자 기꾸시마 겐조¹⁵⁾(菊島謙三, 이하 기꾸시마로 표기함)도 희곡 『손탁호텔』의 전개를 구성하는 인물들이다.

15) 「기꾸시마 겐조오」는 현재 외래어 표기법으로는 「기꾸시마 겐조」로 표기해야 됨. 그러나 원 문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본고에서는 텍스트 p.51에 표기되어 있는 대로 「기꾸시마 겐조오」로 표기하겠음.

제 1막은 손탁호텔에서 미국인 모오스와 러시아인 브리네르의 대화를 통해 조선 산하가 세계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서재필을 기다리고 있던 임철규는 그들의 거슬리는 웃음소리를 피해 이화학당 출신으로 호텔 일을 하는 현주실과 대화를 나눈다. 현주실이 남자들의 유교사상과 봉건적 사고방식을 비판하자 임철규는 동감을 표하고 현주실은 그에게 호감을 느낀다. 그때 일본인 기자 기꾸시마가 방을 예약하러 왔지만 현주실이 방이 없다고 하자 소란을 피우고 때마침 등장한 손탁의 기지로 현주실은 위기를 모면한다. 잠시 후 서재필이 등장하고 임철규는 그와 뜻을 함께 하기를 꾀한다. 서재필은 손탁에게 호텔의 일자리를 부탁하여 임철규를 취업시켜 열강의 동향을 살피게 하고, 백성을 깨우고 조정을 개혁하기 위해 독립신문 창간을 도모한다.

이렇듯 제 1막에서 현주실은 기꾸시마와 실랑이를 벌임으로 인해 그의 등장을 주목시킨다. 기꾸시마가 손탁호텔에 온 이유는 자신이 묵을 방을 예약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는 서양 투숙객들이 싫어하는 일본사람이었으므로 현주실은 객실이 만원이라는 핑계를 대며 방을 내어 주지 않았던 것이다. 화를 내며 퇴장하는 기꾸시마를 알아 본 이상재에 의해 그가 과거 명성황후 시해사건의 하수인이었음이 밝혀지고 모두의 경계를 사게 된다. 권순중은 기꾸시마의 등장에 대해 「기꾸시마 겐조오는 마지막 5막에서 당당하게 호텔 방을 예약함으로써 작품은 수미쌍관(首尾雙關)을 이루게 되고, 이것은 작가의 범상치 않은 작품 구성력을 보여주고 있다」¹⁶⁾고 논했다. 첫 등장인 현주실로 인해 거부당했던 기꾸시마의 호텔 방 예약이 마지막 장면에서 일본의 시대가 도래함을 알리 듯 성사된다. 즉, 현주실은 작품의 처음과 마지막에 호텔 방 예약이라는 「수미쌍관」의 형태를 취하며 등장하는 기꾸시마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한편 극의 개연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제 2막은 1896년 5월 중순 러시아 공사관에 마련한 고종의 임시 어소에서 고종이 세자와 러시아 공사 웨벨이 보내온 커피를 마시며 세간에 떠도는 파천에 대한 비난을 접한다. 이어 들어온 대신들로부터 손탁과 손탁호텔 그리고 서재필에 대한 소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하루 빨리 환궁하라는 독립신문의 내용도 보게 된다.

제 3막 1장은 손탁호텔로 모오스는 떠날 준비를 하는 가운데 브리네르가 독립신문에서 자신들의 나라를 비판하는 기사를 읽고 광분하는 찰나 서재필이 들어오고 언쟁이 시작된다. 손탁은 서재필을 옹호하고 브리네르와 모오스는 불쾌한 듯 퇴장한다. 서재필은 흥분을 삭히고, 손탁에게 독립신문 발행지 3천부 돌과 기념하는 자축회를 손탁호텔에서 하고 싶다고 부탁한다. 손탁은 흔쾌히 허락하고 현주실은 자축회에서 폴카와 왈츠를 출 생가에 마음이 들뜨다.

16) 권순중 앞의 논문 p.162

임철규가 황국협회 사람이 찾는다며 서재필을 데리러 와 둘은 퇴장하고 이 모든 것을 한쪽에 서 몰래 지켜보고 있던 홍종우가 현주실 앞에 나타나 서재필에 대해 몇 가지 묻고는 사라진다. 이어 독립신문 발행 3천부 돌파 자축회 소식을 전해들은 웨벨 공사 부부가 손탁호텔에서의 행사 취소와 향후 서재필을 비롯한 그 무리들의 호텔 출입을 금한다. 손탁은 절연으로 위협하는 웨벨 부부의 억박지름에도 결국 손탁호텔에서 파티를 열기로 한다.

제 3막 1장에서 현주실은 홍종우의 잠입을 마주하는 유일한 인물이다. 앞서 기꾸시마에 이어 손탁호텔로 들어오는 새로운 인물의 개입을 허용하며 뒤에 일어날 소요의 복선을 알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이다.

2장에서는 드디어 자축회가 개최되고, 초대권 없이 들이닥친 불청객 기꾸시마를 저지하려는 현주실이 실랑이를 치른다. 또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는 서재필과 홍종우가 맞붙어 한 차례 소요가 일어나지만 그들의 퇴장으로 자축회는 다시 분위기를 되찾는다. 손탁과 서재필이 춤을 추고 손탁의 사랑고백에 서재필은 측은하고도 담담히 그녀를 다독이며 외로운 존재로서의 동질감을 느낀다.

앞서 1막에서 현주실은 기꾸시마와 호텔 방 예약을 놓고 벌이는 실랑이로 그에게 봉변을 당할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3막 2장에 재차 등장한 기꾸시마를 향해 겁먹지 않고 맞서며 초대권을 요구하는데, 여기서 그녀의 강단(剛斷)진 모습이 잘 나타난다.

제 4막에서는 경운궁 어소에서 고종이 대신들과 함께 날로 더해가는 독립협회의 개혁 추구에 분노하며 대신들의 뜻에 따라 독립협회에 압력을 가할 황국협회 결성을 허락한다. 그 중심인물로 홍종우가 거론되자 고종은 믿지 못할 자라며 불신을 드러내지만 대신들의 권유로 홍종우를 만나보고는 마음이 바뀐다. 그리고 홍종우의 묘안에 따라 독립협회 와해를 위해 법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였던 서재필을 미국정부로 하여금 소환케 한다. 또한 홍종우는 고종에게 김옥균의 머리카락을 충절의 의미로 바친다. 이에 고종은 감격하고 홍종우의 눈엔 야심이 타오른다.

제 5장은 4막으로부터 8개월 후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으로부터 서재필의 소환장이 당도하고 손탁을 비롯한 독립협회 회원들은 일대 혼란에 빠진다. 서재필은 독립협회의 안위를 위해 그에 응하게 되고 손탁호텔에서 손탁과 기약 없는 재회를 약속하며 이별을 고한다. 그때 독립협회 청년이 들어와 홍종우 일당이 신문에 몰려와 기물을 파손하며 난동을 부린다는 소식을 전한다.

한 달의 시간이 흐르고 임철규는 날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황국협회의 소행에 좌절한다. 서재필이 미국으로 떠난 후 독립협회도 사실상 와해나 마찬가지였다. 임철규는 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관의 정치적 미성숙함을 비판하며 정치적 활동을 포기하려 한다. 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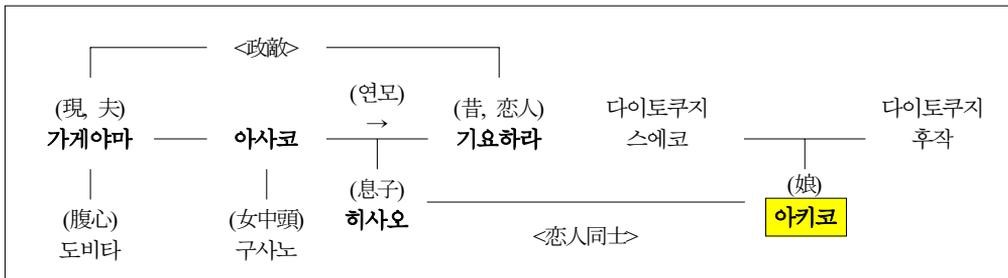
현주실은 임철규를 위로하며 평생 생사를 함께 하겠다고 용기를 주며 자신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조선 여성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떠날 것을 약속한다.

이때 손님이 뜯었던 손탁호텔에 기꾸시마가 일본 헌병을 대동하고 나타나 이토 히로부미가 묶을 방 하나를 예약한다. 기꾸시마가 나가고 손탁은 현주실과 마주친 눈에서 현주실이 호텔 을 그만두고 임철규와 떠날 것을 읽고 넓은 세상을 살살이 구경하는 것도 공부라며 허락한다. 밖에는 안개비가 내리고 손탁은 모두가 떠나감에 쓸쓸함을 느낀다.

이상으로 희곡 『손탁호텔』의 극 구조를 통해 현주실의 활약상을 살펴보았다. 확실히 현주실 은 미스 손탁이나 서재필에 비해 다소 서브(serve)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서브적인 역할이라고 해서 결코 미비한 장식적 요소만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극 전개에 있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현주실은 손탁이라는 여성을 롤 모델로 삼음으로써 손탁이 근대 여성의 표상임을 부각시킨다. 또 기꾸시마의 등장을 강하게 경계함으로써 그의 존재를 기억시키고, 수미쌍관의 작품구성이 자연스럽게 완성되는 데에 일조하였다. 한편 그녀는 손탁호텔에 잠복 해 들어온 홍중우와 대면한 유일한 인물로 연회장에서 일어날 소요의 복선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재필이 미국으로 소환되고 독립협회가 와해된 현실에 좌절하는 임철규 를 위로하며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고 조선 여성교육이라는 사명감아래 유학의 길을 택한다.

이렇듯 현주실은 상대적으로 비주류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인물간의 관계를 조율하며 극의 흐름 속에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인물로 근대 교육을 받은 여성의 면모를 잘 나타내 고 있다.

3.2 아키코의 위상



鹿鳴館에는 위의 인물 관계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성 강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한다. 특히, 여주인공 아사코(朝子)를 주축으로 현 남편 가게야마 하루토시(影山悠敏)와 옛 연인 기요하라 에이노스케(清原永之輔)는 정적(政敵)으로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아사코의 남편

이자 정부고관이었던 가게야마는 일본의 불평등 조약개정을 위해 서양의 흉내를 내서라도 목적을 달성하려는 냉혈한이다. 그에 반해 기요하라는 가정보다는 민중을 우선시 하는 자유당의 수장으로 아사코의 마음 속 영원한 연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히사오(久雄)는 친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면서 가정에 무심한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찬 청년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사랑하는 연인 아키코(顕子)가 있다. 그리고 아키코의 어머니 스에코를 비롯해 가게야마의 심복 도비타 덴코쓰(飛田天骨)와 아사코의 하녀장 구사노(草乃) 또한 희곡 『鹿鳴館』을 이루는 등장인물이다.

이 중에서 아키코는 여주인공 아사코를 비롯해 가게야마, 기요하라, 히사오에 비하면 비주류의 인물이다. 하지만 그녀의 작지만 결정적인 역할이야 말로 극을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라 판단했기에 극의 흐름 속에서 그녀의 위상을 기능해 보려고 한다.

『鹿鳴館』은 1886년 11월 3일 천장절(일본 천황의 생일) 오전부터 한 밤중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제 1막과 2막은 가게야마 백작의 저택을, 제 3막과 4막은 밤 무도회가 열리는 鹿鳴館을 무대로 하고 있다.

제 1막은 히비야 연병장이 내려다보이는 가게야마 백작 저택의 정원에는 스에코와 그의 딸을 비롯한 몇 명의 귀부인들이 안주인 아사코의 무도회 불참을 의문스러워하며 망원경으로는 천장절 기념 관병식을 보고 있다. 아사코가 등장하고 연애문제를 상담할 스에코와 아키코를 제외한 부인들은 남편을 맞으러 집으로 돌아간다. 이전에 게이샤였던 아사코는 아키코의 연애 상담을 하는 도중에 그 상대가 20년 전 자신과 기요하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히사오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란다. 기요하라는 반정부파 자유당의 수장으로 현재 아사코의 남편인 가게야마와는 정적이며, 세간에서는 자유당의 잔당이 가게야마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 와중에 기요하라의 아들인 히사오가 아키코에게 목숨을 건 사명이 있다며 헤어짐을 선언하자 아키코는 히사오가 가게야마를 암살하는 일에 가담했다고 짐작하고 아사코에게 상담을 하게 이른 것이다. 그리고 히사오가 잘못되면 그 뒤를 따라 죽을 것이라는 아키코의 말에 아사코는 히사오의 계획을 저지하고 아키코와의 사랑의 도피를 돕기 위해 히사오를 만나 그가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 묻는다. 결국 히사오가 암살하려는 사람이 자신의 현재 남편이 아닌 오늘 밤 鹿鳴館 파티에 들어와 새로운 헌법을 읊을 그녀의 옛 연인이자 히사오의 아버지인 기요하라 라는 뜻밖의 고백을 듣고 놀란다. 그리고 히사오에게 20년 동안 숨겨 온 자신의 비밀, 즉 자신이 생모임을 밝힌다.

제 2막은 놀란 아사코가 자신의 심복인 하녀 구사노를 시켜 기요하라를 저택 다실로 부른다. 20년만의 재회였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고, 기요하라가 장사들을 이끌고 鹿鳴館에 온다면 히사오에게 변을 당할 것이기에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그에게 장사들의 난입 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부탁한다. 기요하라가 자신의 계획을 꺾으려하지 않자 그동안 무도회에 나가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규칙을 깨고 오늘 밤 鹿鳴館 무도회의 안주인 자격으로 참석을 선언한다.

제 3막에서는 기요하라로부터 장사의 난입 철회를 약속받은 아사코가 남편에게 무도회에 나갈 것을 알린다. 갑자기 변한 아내의 태도를 수상하게 여긴 가게야마는 하녀장 구사노를 유혹해 그 이유를 알게 된다. 질투심에 불탄 가게야마는 심복 도비타로 하여금 가짜 장사들을 난입시켜 기요하라를 유인하도록 지시한다. 그리고 그렇게 유인된 기요하라를 쏘도록 히사오를 부추긴다.

제 4막에서는 鹿鳴館 무도회가 시작되고 철회된 줄 알았던 자유당 잔당들의 난입으로 아사코는 기요하라의 배신에 당황해 하며 장사들과 맞선다. 칼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장사들의 난입에 히사오 역시 흥분하여 아버지의 마차를 기다렸다가 그에게 총부리를 겨눈다. 총소리가 울리고 누군가가 쓰러졌다. 놀란 아사코는 鹿鳴館으로 걸어 들어오는 기요하라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 곧 히사오가 죽었다는 기요하라의 말에 약속을 어긴 비겁자라며 그를 맹비난한다. 하지만 장사의 난입은 가게야마가 꾸민 계략임을 폭로하며 기요하라는 떠난다. 모든 정황을 알게 된 아사코는 남편 가게야마가 가식과 음모 투성이인 정치 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며 이혼을 선언하고 기요하라를 따라가려 한다. 하지만 마지막 왕비전하를 맞이하기 위해 다시 예를 갖추고 왈츠 곡에 맞춰 춤을 춘다. 멀리서 아련히 총성이 울린다. 가게야마는 불꽃놀이 소리라며 아사코와 다시 춤춘다.

이상으로 주요인물을 둘러싼 극의 구조를 살펴봤을 때, 아키코는 사건 전개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히사오의 연인인 아키코는 그가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일 때문에 이별을 고하자 이를 고민하여 어머니 스에코와 함께 자신의 연애문제를 아사코에게 상의한다. 이 일로 인해 아사코는 히사오를 만나게 되고 그가 20여년 전에 연인 기요하라와 사이에서 낳은 자신의 친 아들임을 알게 된다.

임훈식은 히사오의 존재를 「이 작품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빼 놓을 수 없는 주요인물」¹⁷⁾이라고 했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인물은 아키코이다. 히사오가 그의 친부를 암살할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아사코가 아키코의 연애상담으로 인해 그를 만나지 못했다면 과연 극이 현재와 같은 개연성으로 전개될 수 있었을까하는 의구심을 낳게 한다. 만약 아사코가 히사오의 계획을 몰랐다면 기요하라를 만날 일도 없었을 것이고, 鹿鳴館 무도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기요하라는 계획대로 鹿鳴館에 난입하고 가게야마의 질투심

17) 林 薰植 앞의 논문 p.209

이 배제된 채 히사오는 자신이 증오하는 아버지에게 총부리를 겨누었을 것이다. 더욱이 극 전개의 가장 중요한 아사코의 鹿鳴館 참석의 동기의 싹이 잘리고 그로 인해 가게야마의 질투와 권모술수가 드러날 여지가 사라진다. 따라서 아사코의 연애상담은 사건의 도화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해 가는 여주인공 아사코의 능수능란함을 극대화 시켰다. 비록 아사코의 비중이 극중에서 서브적인 역할이지만 극의 흐름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며 여주인공 아사코의 개성을 부각시키는 역할로서의 위상을 지녔다.

4. 현주실과 아사코의 여성상

4.1 근대적 자의식의 측면

현주실은 개화기에 이화학당에서 공부한 근대적 자아를 지닌 신여성에 가까운 인물이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신여성의 본격적인 등장은 1920년대이므로 작품 속 시기를 고려했을 때, 이제 막 신여성의 기틀이 다져지기 시작하는 단계의 여성이라고 봐야 하며 작품 속에 드러나는 현주실의 양상에서도 완벽한 신여성이라기보다는 그 단계로 이행해 가는 여성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1886년 설립된 이화학당은 「조선 최초로 근대적 여성교육」¹⁸⁾을 실시한 학교였지만 정작 물려드는 학생들은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말에 성큼 딸을 내놓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거나 길거리를 헤매다가 선교사들의 손에 이끌려 온 고아들」¹⁹⁾이었다. 이렇듯 19세기 말부터 교육 구국운동에 힘입어 많은 여학교들이 설립되었지만 많은 집안에서 여성들에 대한 근대 학교 교육은 거부되었다. 유교적인 내외법이 강했던 사대부 집안의 경우 딸과 며느리를 바깥출입시키는 학교 교육이 허용되지 않았고, 또 서양 선교사가 중심이 된 기독교 여학교에 대한 사대부의 거부, 또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거부 등으로 딸과 며느리에게 교육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²⁰⁾

실제 이화학당의 창설자인 스크랜튼 부인은 이 학당의 개교 당시의 고충을 다음과 같이

18) 여성사 연구모임 길박세상 지음(2001) 『20세기 여성 사건사』여성신문사. p.16

19) 최경숙, 한세화(1976) 「開化期 韓國女性의 近代意識의 形成」『論叢』28집, 이화여자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원. p.337, 355 참조

20) 조순경, 김영옥, 김은실, 박진숙, 정재서(2003) 『한국의 근대성과 가부장제의 변형』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p.71-72

보고하고 있다.

“학교 수업은 새집으로 가기 6개월 전에 스크랜튼 의사 사택에서 시작되었다. 학생 하나를 상대로 수업이 출발되었다. 학생이라는 사람은 정부 관리의 첩으로서, 그 관리는 자기 첩이 영어를 배워 가지고 언젠가 황후의 통역이 되어 보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 여자는 3개월 쯤 밖에는 우리와 같이 있지 않았다. 제일 처음의 장기적 학생은 김부인보다 한 달 뒤인 1886년 6월에 왔다. 이 여자가 우리에게 온 것은 틀림없이 가난 때문이었고..... 두 번째로 온 학생은 집도 없는 乞兒로서, 그 모친은 성문 밖에서 스크랜튼 의사가 주워오다시피 하여 병을 치료한 여인이었다.”²¹⁾

이에 김수미는 이화학당의 학생과 입학의 특징에 대해 「최초의 여학생 김부인 이후에는 여학생의 성분이 주로 빈민 고아였고 자발적으로 입학한 것이 아니라 숙식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적 입학²²⁾이었다고 보았다.

이화학당을 졸업한 현주실 역시 다음 대화를 통해 자신의 환경과 조선이 처한 상황을 자조하는 데에서 그녀가 부유한 집안의 여식이 아님을 추측할 수 있다.

현주실 : 오늘 따라 왜 그러지시죠? 여느 때와는 전혀 다른 분 같아요. 미스 손탁만은 외로움을 모르는 여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미스 손탁의 도움으로 이화 학당을 마쳤고, 또 이 호텔에서 일해 오는 동안 미스 손탁처럼 외로움을 모르는 여성이 되어야겠다고 마음 먹었지요. 자신에 찬 여성, 신념의 여성.

손 탁 : 그럴까?

현주실 : 가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갖추었으니까요. 우리처럼 가난하지도 무식하지도 않으니까요. 깃밟히지도 억눌리지도 않으셨잖아요? 가고 싶은 곳 다 가보고 만날 수 있는 사람 다 만나고.... 아.... 그리고 보면 우리 조선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민족인가 봐요.²³⁾

현주실은 가난한 집안의 딸로서 열강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당시의 조선을 살아내기가

21) M. F. Scranton(1896) “Woman's Work in Korea”, The Korea Repository, Vol. 3, No.1, pp.3-4 : 金秀美(1996) 「開化期女性の 近代意識 形成에 關한 研究 -基督教系統의 女學校를 中心으로-」명지대학교 대학원. pp.46-47재인용

22) 金秀美(1996) 「開化期女性の 近代意識 形成에 關한 研究 -基督教系統의 女學校를 中心으로-」명지대학교 대학원. pp.46-47

23) 텍스트 『손탁호텔』p.95

버거운 듯하다. 그녀의 이런 가난한 태생적 조건은 현실을 타파하고 배움을 열망하는 데에 좋은 동기부여가 되었기에 손탁을 동경하고 그녀를 롤 모델로 삼아 닮고자 했다고 생각한다.

반면 아키코는 부유한 다이토쿠지 후작의 딸로 누구보다도 근대화가 가져다 준 풍요로움을 향유하고 있는 여성이었다. 예컨대 차리네 곡마를 구경하고 鹿鳴館 무도회에 출입하는가 하면, 그녀의 어머니는 프랑스제 손가방과 다이아몬드 반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 선봉장에 섰을 부유한 고관 대의 귀족자 제라는 사회적 지위는 극 중 사다코와 노리코의 「이런 새롭고 멋진 시대」 「몇 백 년 만에 여자들이 빛을 보게 된 시대」²⁴⁾라는 대사처럼 혜택 받은 시대의 도래와 함께 그녀가 태어날 때부터 받은 교육을 비롯해 여러 가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했음 짐작케 한다.

하지만 「신여성을 제도교육과 외양이 아니라 ‘근대적’ 여성 의식을 가진 자들이라고 규정한다면, 이것은 봉건적인 신분질서와의 단절, 성적 자율성, 보편인권에 입각한 자유와 평등사상 등이 그들의 정신적·육체적 공간에 어떻게 각인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²⁵⁾와도 뿔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근대적 의식이라는 것은 「봉건적인 신분제를 대체할 수 있는 가부장적인 사회구조를 변화시켜 내겠다는 무의식적 의도와 행동, 즉 실천을 포괄하는 개념」²⁶⁾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를 근거로 생각해 보았을 때, 아키코가 근대적 자의식을 가지기에는 그녀의 부유한 환경이 오히려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키코에게 있어 신문물에 관심이 많은 부유한 고관 대의 귀족자제라는 사회적 지위는 그러한 구제도로부터 일찍이 해방이 되었거나 봉건제도의 억압이 일정 부분 완화된 상태로 접촉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즉, 아키코에게는 자신의 현실을 스스로 타개해 개혁할 필요성이 적은 환경이 조성 되었을 것이고, 이러한 환경 속이라면 각성된 의식과 정치적 방향의 형성이 미숙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일지도 모른다.

이에 반해 현주실은 가난한 집안의 여식으로 그녀가 체감하는 봉건제도의 무게는 아키코의 그것과 같을 수 없다. 하지만 다행히 손탁의 도움으로 이화학당이라는 곳에서 근대적 여성 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봉건적인 신분질서와의 단절」, 「보편인권에 입각한 자유와 평등사상」에 대한 의식을 강하게 형성할 수 있었다. 근대적 자의식 형성에 있어 필요한 여러 조건들이 갖추진 셈이다. 이러한 현주실의 봉건제도에 대한 개선의 의지는 초면인 임철규를 대하는 장면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24) 텍스트 『鹿鳴館』 p.13

25) 태혜숙 외(2004)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도서출판 여이연. p.79

26) 위의 책 p.80

임철규 : 어떻게 이런 데서 일을 보시게 되었나요? 남자들도 감당하기 힘든 일인데.....

현주실 : (꺾싸게) 여자라고 알잡아 보시는군요?

임철규 : 그 그런 게 아니라..

현주실 : (일을 계속하며) 아녀자가 이런 곳에서 일하는 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조선의 남자들의 사고방식부터 뜯어 고쳐야겠어요.

임철규 : (어리둥절해서) 예?

현주실 : 아직도 퀴퀴 묵은 유교사상이나 봉건제도의 담벼락 속에서 늘어지게 낮잠 자는 남자들이 문제라구요. 안 그래요?²⁷⁾

이 장면에서는 조선사회의 제도적 개선에 대한 욕구가 드러나는 동시에 여성이지만 남성인 임철규를 대함에 있어서 당당하고도 대등한 현주실의 면모가 엿보인다. 특히 「아직도 퀴퀴 묵은 유교사상이나 봉건제도의 담벼락 속에서 늘어지게 낮잠 자는 남자들이 문제」라는 말에서는 조선은 이미 개화기를 맞아 많은 것이 빠르게 변하고화기를데 여전히 구제도와 인습의 틀에 갇혀 세상을 똑바로 읽지 못하는 남자들을 강하게 비판한다. 하지만 그렇다고화해서 이 장면만 가지고화현주실이 근대적 자의식을 온연히 습득한 개화인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왜냐하면 논자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주실이 완벽한 신여성이라기보다는 그 단계로 이행해 가는 과정의 여성이라고 한 근거가 아래의 대화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임철규 : 그렇죠. 외관상으로는 여러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고민이 많은 어른이죠.

현주실 : 외국 여성을 아내로 맞이한 데도 그 원인이 있겠지요.

임철규 : 그럼 주실 씨는 외국인과의 결혼은 절대 반대하시군요?

현주실 : 그래요. 저는 정치적 이념으로는 진보적이지만 도덕적 이념으로는 보수적인 것을 택하겠어요.²⁸⁾

현주실은 고종의 황국협회 조직의 압박과 미국 정부의 소환에 처한 서재필을 두고 외국인 배우자를 얻었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판단한다. 현주실은 「정치적 이념으로는 진보적이지만 도덕적 이념으로는 보수적인 것을 택하겠어요」라며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나타낸다. 흥미롭게도 봉건적인 사상에 대해서는 이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욕을 보이지만

27) 텍스트 『손탁호텔』, pp.54-55

28) 텍스트 『손탁호텔』, pp.122-123

외국인을 배우자로 맞이하는 데에는 보수적인 면을 드러내면서 앞서 임철규를 향해 「퀴퀴 묵은 유교사상이나 봉건제도」에 대해 일갈하던 모습과는 다른 양상을 띤다. 이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조선 사회가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해 오던 전통 예절 교육 속에서 여전히 자신의 이상형을 찾으려는 전통윤리 정신의 영향이라 짐작된다.

즉, 현주실은 전통적인 봉건 윤리의식을 비판하면서도 도덕적 이념의 보수성이라는 태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치관의 착종(錯綜) 현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관의 착종은 현주실에 국한된 모습이 아니고 아키코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어 흥미롭다.

아키코는 차리네 곡마(チャリネ曲馬)에서 잃어버렸던 어머니의 손가방을 찾아준 히사오를 어머니의 권유로 다음날 점심에 초대한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히사오를 사랑하게 된다.

문광훈은 「근대적 자아란 개인적 감정의 유일무이성, 이 유일무이한 권리에 대해 자각하는 자」²⁹⁾라고 정의하며, 「이런 자각에서 비 인습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이 생겨난다」³⁰⁾고 했다.

무릇 인습은 전통과 구별되는 것으로 「인습이 전대(前代)로부터 후대(後代)로 전해지는 것들 중에서 합리적·진보적 관점에서 가치가 의심되거나 부정되고 있는 것으로 후대에 필히 버려야 하는 것이라면 전통은 전대(前代)로부터 후대(後代)로 전해지는 것들 중에서,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것을 말하며 후대에 필히 전해져야 되는 것을 의미」³¹⁾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가려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인물이 근대적 자의식을 가진 개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아키코가 스스로 사랑을 선택하여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사는 태도에서는 근대적 의식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또 「어떻게 하실 작정이었어요? 혹시 히사오 씨의 신상에 큰일이 생긴다면?」³²⁾이라는 아사코의 질문에 「뒤를 쫓아갈 작정이었어요」³³⁾라고 변함없는 자신의 주관을 관철하며 사랑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아키코는 사랑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만큼 대담성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히사오를 향한 사랑에 개인적인 감정을 자각하여 「과격한 연애」³⁴⁾라는 말에도 굴하지 않고 그와의 사랑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아키코는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적극적이고

29) 문광훈(2010) 『한국 현대소설과 근대적 자아의식』 아카넷, p.338

30) 위의 책 p.338

31) http://cafe.holiro.co.kr/?document_srl=688 전통과 인습의 차이 참고

32) 텍스트 『鹿鳴館』 p.20

33) 텍스트 『鹿鳴館』 p.20

34) 텍스트 『鹿鳴館』 p.16 아키코의 연애 상대 히사오가 자유당의 잔당 반정부파의 리더 기요하라 에이노스케의 아들임을 두고 스에코와 아사코가 한 말.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는 신여성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녀의 연애가 어머니의 지나친 개입에 의해 휘둘리는 모습은 주체적인 의식아래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신여성의 모습과는 거리감이 있어 보인다.

즉, 아키코는 사랑표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반면 사랑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잦은 개입이 포착되고 그것을 순순히 따르는 모습에서 가치관의 착종이 발견된다. 일례로 아래의 대화를 살펴보면

아사코 : 그러면 과격한 연애를 하고 계신 거네요. 그 귀여운 얼굴로. 그 상대는 누구시죠?

설마 파란 눈의 외국인은...

스에코 : 저는 외국인이 좋지만, 아키코는 싫대요.(라며 딸의 얼굴을 엿본다.)

아사코 : 신분이 낮은 남자라도 좋아지신 건가요?

스에코 : 아니요, 천출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 편이에요.

아사코 : 설마 자유당의 잔당은...

스에코 : 그 자유당의 잔당이에요. 분명.

아사코 : (얼굴색을 바꿔) 네?

스에코 : 놀라시는 게 무리도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당신 남편의 적, 남편 분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소문의 사람들.

아사코 : 어머!

스에코 : 자, 아키코, 아주머니께 모든 걸 설명하세요. 자신의 일을 스스로 말할 수 없어서는 안돼요. 신여성은 그래서 안돼요.

아키코 : 저, 그러니까.... 여름의 끝자락이었어요.³⁵⁾

아키코의 연애 상담임에도 불구하고 스에코는 「연애 문제, 서둘러서는 안 된다. 내가 얘기 할 때까지,³⁶⁾라며 자신이 주도해 나간다. 또한 아사코를 만나서도 「나는 새로운 시대를 이 아이가 마음껏 살아가길 바라고 있어요. 내가 살지 못했던 인생을. 때문에 이 아이의 연애는 나의 연애이기도 해요.³⁷⁾라며 어머니의 적극적인 개입이 드러난다. 아사코가 묻는 말에도 연신 어머니 스에코가 대신 대답하고 있으며 「자, 아키코, 아주머니께 모든 걸 설명하세요. 자신의 일을 스스로 말할 수 없어서는 안돼요. 신여성은 그래서 안돼요」 라는 어머니의 허락이 떨어지자 겨우 아키코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즉, 어머니 스에코의 명령과 자유로운

35) 텍스트 『鹿鳴館』 p.16

36) 텍스트 『鹿鳴館』 p.14

37) 텍스트 『鹿鳴館』 p.15

개입은 아키코의 수동성을 뒷받침한다.

또 아사코가 파란 눈의 외국인이 연애 상대냐고 물었을 때 스에코는 연애 상대로서 외국인을 좋아한다고 했지만 아키코는 싫어한다며 딸의 대답을 대신한다. 잦은 연회 참석으로 외국인을 대하고 함께 춤을 추는데 익숙할 법한 아키코에게도 배우자감으로서 외국인은 현주실이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거부감의 대상인 것이다.

아키코는 히사오와의 대화에서도 그를 향한 한없는 순애보의 모습을 피력한다. 히사오를 하늘의 별에 비유하고 자신을 거기에 매달린 천막으로 비유하여 히사오가 자신을 떠난다면 자신은 죽는다고 얘기한다. 마치 그녀의 인생은 히사오에 대한 사랑으로만 일관된 듯 상당히 단조롭고 의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아사코의 설득으로 히사오의 암살계획이 중단되자 아키코는 기뻐하며 한 시라도 빨리 오늘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린다. 하지만 여기서 아키코가 한 일은 아사코에게 연애 상담을 한 것 뿐, 그 이후에 모든 일처리는 아사코의 손에서 이루어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아키코 : 불복할 것 같은 말투! 아주머니는 우리의 구원의 신이 아닙니까? 오늘 하룻밤을 보내면 나와 함께 멀리 여행 할 것을 당신이 허락하신 것도 아주머니의 힘으로 당신이 오늘 밤의 임무를 중단했기 때문이죠? 죄송하군요. 모두 저에게 유리한 것뿐이라고 좋아해서. 하지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 주세요. 저의 기쁨, 당신의 행복은 그것이 그대로 당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너무나도 잘 중단해 주셨어요. 아니요, 그것을 저 때문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아주머니가 능숙하게 진심을 담아서 상냥함이란 상냥함은 충동원해서 당신을 설득했기 때문이라는 거. 마치 당신의 어머니 같이.³⁸⁾

즉, 아키코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입장에서 행동하기보다는 어머니 스에코나 아사코의 조언과 계획을 수용하고 따라가기만 하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직면한 과제에 대해서 이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너무나도 방관적이다.

이렇듯 사랑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돌파구를 찾기보다는 주변의 도움에 의존하여 현실을 타파하고자 하는 모습은 과연 그녀가 근대적 자아가 제대로 확립된 인물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하지만 아키코는 스에코의 말처럼 이미 신여성을 지향하고 있다.

근대문명에 대한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부분은 그녀가 온연히 누군가의

38) 텍스트 『鹿鳴館』 p.58

말에 휩쓸리는 나약한 여성이라고 못 박을 수 없는 대목이기도 하다. 예컨대, 무도회가 시작되기 전 저녁노을을 보며 「어째서 아무도 이 저녁노을 속에서 춤추려고 하지 않을까요? 밤이 완전히 깊어서야 인공의 불빛, 인공 음악, 인공 무대 위에서...」³⁹⁾라고 말한다. 즉, 근대문명이 선사한 인공의 가치가 아키코에게 있어 맹목적인 선호의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자각은 하지만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까지 이어지지 못한 채 만들어 낸 불빛, 만들어 낸 음악, 만들어낸 무대라는 인공적 가치에 대한 회의만을 드러낼 뿐이다.

근대적 제도교육을 받고, 외형적 조건으로서는 신여성의 면모를 충족한 반면, 분명 당시에는 각성된 의식과 정치적 방향의 형성이 미숙한 여성들이 여전히 존재했다. 그리고 아키코 또한 이에 속하는 인물이라 생각한다. 이것은 개화기에 살고 근대적인 삶이 어떠한 것인지 알며 그 문화를 향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근대적 자의식이 온전히 확립되지 않은 상태, 신여성으로 이행 해 가는 단계라 판단된다. 그렇다고 이들을 흑백 논리에 의해 근대적 자의식이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것이다. 이러한 양상을 고려한다면 아키코의 근대적 자의식을 완전히 부정할 것이 아니라 피상적으로 개화된 모습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주실은 사랑에 있어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먼저 고백할 줄 아는 여성이다. 그녀의 임철규에 대한 호감과 끊임없는 지지는 결국 생사도 함께 할 것임을 다짐하는 고백으로 이어진다. 이는 여자인 현주실이 남자에게 먼저 사랑을 고백한 것이며, 자기감정에 솔직하고 당당한 적극적인 여성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절망하는 임철규를 다독여 세우는 그녀의 모습에서 임철규 보다 강한 마음의 소유자라는 것도 읽을 수 있다. 이렇듯 현주실의 모습은 임철규와의 사랑에 있어서 자신의 주관과 의지를 관철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개화된 근대인의 한 단상을 피력하고 있다. 결국 현주실은 근대교육의 혜택을 받았고, 비록 도덕적 이념에 있어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긴 하지만, 봉건적 가부장제와 단절을 피하는 욕망을 가졌다. 또한 신문이라는 매체를 통해 세상의 흐름을 읽어 온 여성으로 사랑에 있어서도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적극적이다. 이는 곧 주체적인 삶을 영위한 노력의 흔적이며, 비록 가치관의 착종이 보이긴 하지만 근대적 자의식에 눈뜬 여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2 이상추구의 방향성

현주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화학당을 졸업하였고, 근대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의 소신과 꿈을 키웠다. 그리고 그 꿈을 언제 어디서에서나 피력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끊임없

39) 텍스트 『鹿鳴館』 p.57

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신문을 읽고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 왔다.

서재필 : 사실, 처음에는 겁도 나고 불안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이루었는데.... 이렇게 발행
부수가 늘어가니까 보람을 느끼게 되는군요. 그만큼 나의 친구가 늘었다는.....

손 탁 : 친구가 아니라 동지겠지요!

현주실 : 그럼 저도 서 박사님의 동지겠네요. 전 독립신문을 창간호부터 한번도 빼놓지 않고
읽어 왔으니까요.

서재필 : (악수를 청하며) 동지. 고맙소!⁴⁰⁾

이처럼 독립신문을 창간호부터 꾸준히 읽으며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고 어느덧 임철규가
쓴 사설에 대해서도 평가할 정도가 된다.

현주실 : (전략)..... (빙그레 웃으며) 정말 잘 쓰셨어요.

임철규 : 진담이십니까?

현주실 : 물론이죠.

임철규 : 감사합니다.

현주실 : 철규 씨의 필봉도 이제 만만찮은 독기를 뽐고 있어요. 서 박사님 이상으로...⁴¹⁾

현주실의 이러한 행보는 이화학당을 나와 손탁호텔에서 지배인으로 일하면서 만난 독립협
회의 수장 서재필과 그 주변사람들의 영향이 크다 하겠다. 특히 이러한 「19세기말 여성의
근대의식의 보급과 성장에 괄목할 만한 역할을 한 것은 무엇보다 독립협회의 활동과 그 의견
을 전달해 준 [독립신문]에 그 공을 돌려야⁴²⁾ 할 것이다.

앞서 고종의 황국협회 조직의 압박과 미국 정부의 소환에 처한 서재필을 두고 현주실과
임철규가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현주실은 「정치적 이념으로는
진보적이지만 도덕적 이념으로는 보수적인 것」을 택하겠다고 하자 임철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임철규 : 욕심도 많으시군! 허헛.... 그럼 외국 유학은 어렵겠군요.

현주실 : 외국유학과는 별개 문제지요. 미국으로 갈까해요. 미스 손탁이 주선을 해주기로

40) 텍스트 『손탁호텔』 p.87

41) 텍스트 『손탁호텔』, pp.120-121

42) 최경숙, 한세화 앞의 논문, p.341

했으니까요. 조선여성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여성 교육부터 체험하지는
게 저의 주장이니까요.⁴³⁾

이 부분은 현주실이 평소 품고 있던 당찬 꿈이 표출되는 장면이기도 하다.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거부감과 외국유학은 별개의 문제라며 조선 여성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 미국으로 가 여성 교육을 체험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현주실이 교육의 힘을 신뢰하고 이를 통해 조선 사회의 개혁을 도모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에 의해 축적된 지식으로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나라 개혁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즉, 현주실의 공동체 이익 지향의 이상이 잘 나타나고 있다.

실제 이화여성사에서는 「1908년 정기 졸업식이 있기까지 졸업생은 50명 정도가 되었는데 이중 1/3 가량은 사회에 진출하였을 것」⁴⁴⁾이라고 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교육계, 종교계, 의료분야였는데 특히 1905년 교육구국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동안 이화출신의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⁴⁵⁾고 한다.

마지막에 손탁에게 호텔을 떠날 것임을 알리는데 이는 임철규와 사랑을 위한 도피로서의 떠남이 아니라 현실타개를 위한, 발전 도모를 위한 여정임을 암시한다. 현주실은 교육을 통해 개인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발전을 발판으로 나라의 발전을 도모하는 공동체의 이익을 지향하는 이상을 가진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다.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인격체로서 개인의, 나아가 민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현주실의 이상을 논자는 공동체 이익 지향의 이상으로 해석했다. 국가와 민족의 근대화를 위한 길에서 여성 개인이 근대적 주체로 설 수 있는 기회는 실로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교육을 위해 임철규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하고자 하는 현주실의 모습에서 조선 개화의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다.

「1890년대 중반 이후 우리 사회에는 한민족의 절반이 되는 여성을 계몽시켜야만 자주독립이 성취된다」⁴⁶⁾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에 여성 교육은 이 같은 한민족의 개화 열망에 힘입어 더욱 발전·확대될 수 있었다. 「주체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진실된 감정과 바른 사고 아래 영위되는 독자적인 삶에 대한 노력의 표현」⁴⁷⁾이다. 이러한 노력의 표현들이 현주실의 삶 속에는 녹아 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의 지표가 공동체 이익을 지향하는 이상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밖으로 향하는 방향성을 나타내고

43) 텍스트 『손탁호텔』, pp.122-123

44) 鄭世華(1972) 「韓國近代女性教育」(『韓國女性史 II』梨花女子大學校出版部), p.83

45) 위의 논문, p.83

46) 박용옥(2001) 『한국 여성 근대화의 역사적 맥락』지식산업사. p.257

47) 문광훈 앞의 책, p.346

있다.

반면 아키코는 자신의 사랑을 지키고 유지하려는 데에 강한 의지를 보인다. 그래서 그녀의 사랑에 위협이 되는 히사오의 계획이 아사코의 설득으로 중단되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한다. 그리고 한시라도 빨리 천장절 밤이 지나가기를 바란다. 아키코는 히사오에게「오늘 하룻밤을 보내면 나와 함께 멀리 여행 할 것」⁴⁸⁾과「어디 낯선 외국에서 우리들은 시간을 보내고 아버님이 결혼을 허락하신다면 좋겠다」⁴⁹⁾고 이야기한다. 히사오와의 안정적인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해 해외로의 도피를 원했던 것이다. 아키코는 고관택 영애로 태생적으로 얻은 부를 이용해 교육을 통한 자기 발전은 물론이고 국가 발전 도모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남자의 여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랑을 지키는 현모양처가 되기를 바랐다.

근대화 시대에 발맞추어 자기를 계발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나라에 이바지 하는 일은 아키코에게 있어서 타 세계의 일인 것이다. 아키코의 바람은 단지 히사오와의 안정적 사랑 추구라는 개인의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대의 혜택과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 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이 그녀에게는 더 큰 행복이었다. 이것은 타 세계의 상황보다는 자신의 사랑을 지키고 유지하려는 개인 행복 지향의 이상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히사오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현주실이 교육을 통해 자신과 나라의 발전을 도모하는 확장형 이상을 통해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했던 반면 아키코는 국가의 발전 도모보다는 히사오와의 안정적 사랑이라는 개인의 행복에 이상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주실은 아키코에 비해 좀 더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인격체로서 개인의, 나아가 민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고 한다. 그러나 아키코는 어머니 스에코의 조언에 따라 아사코에게 연애 문제를 상의한 후, 히사오와의 안정적 사랑이라는 개인적 행복 추구를 위해 해외로 나가려 한다. 즉, 현주실이 개인에서 민족으로 발산하는 확장형 이상을 가진 여성이라면, 아사코는 히사오를 저지하여 둘만의 사랑의 도피를 꿈꾸는 내향적 이상을 가진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서구 문물이 물밀듯 밀려오는 개화기를 살았고, 근대적 자아를 가지면서도 두 여성이 각기 밖으로, 안으로라는 반대적 이상을 추구하는 연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논자는 두 여인이 처해 있는 사회구조적 위치, 좀 더 범위를 좁혀 태생적 이질성과 연인과의 목적의식 일치 여부에서 그 단초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해 보았다.

48) 텍스트 『鹿鳴館』, p.58

49) 텍스트 『鹿鳴館』, p.75

	현주실	아키코
태생	가난한 집안의 여식 근대교육 받음→ 자아 각성→ 부당한 현실 타파→ 행동으로 실천→새로운 세상을 더 배워서 조선 여성들을 위해 일하고자 함.	고관댁 영애 일상화된 근대 →자아 각성→ 현실에 대한 불만 적음(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 자신의 사랑이 무사하기만을 바람. → 안정된 사랑을 위한 현실도피성 해외 행
연인과의 목적의식	일치 (동지애를 바탕으로 싹튼 사랑. 비록 현실이 암울하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믿음): 두 사람의 조합은 시너지 효과를 냄.	불일치 (히사오가 하려는 일은 아키코가 원하는 안정된 사랑에 위협이 되는 일):인생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서로를 해하는 일로 치달음. 히사오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함.

우선 현주실은 가난한 집안의 자녀라는 것. 이것은 현실을 타파하고 배움을 열망하는 데에 좋은 동기부여가 된다. 그리고 그 동기부여로 축적된 지식으로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나라 개혁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또한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연인 임철규의 역할도 그녀의 확장형 행보를 돕는 역할을 한 것이다. 이에 반해 아키코는 부유한 고관 댁의 여식으로, 태어날 때부터 근대적 혜택을 자연스럽게 받아 들였기에 자신의 현실을 타파해 개혁할 필요성이 선천적으로 거세당한 여성이다. 또한 히사오가 하려는 일은 그녀의 사랑에 위협이 되는 일이므로 그것을 반대하고 안정적인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해 해외도피를 계획한다. 즉, 아키코의 경우에는 현주실과 달리 연인과의 목적의식에서도 극명한 차를 보인다. 이것은 더욱 그녀를 타 세계의 상황보다는 자신의 사랑을 지키고 유지하려는 내적 성향 즉, 안으로 향하는 이상을 지향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이상으로 희곡 『손탁호텔』과 『鹿鳴館』에 나타난 현주실과 아키코의 여성상에 대해 알아보았다. 두 여성상은 각기 한국과 일본의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는 개화기를 배경으로 구현되었는데, 논자가 지금까지 분석한 두 여성상을 비교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현주실과 아키코의 극 중 위상을 가늠해 본 결과 서브(serve)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

에 따라 주인공들의 성격과 개성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예컨대 현주실이 손탁을 롤모델로 삼음으로써 손탁이 근대 여성의 표상으로 부각되었고, 기꾸시마의 존재를 각인시킴으로 인해 수미쌍관을 자연스럽게 완성시키는 데에 일조하였다. 아키코 역시 사건의 도화선이 됨으로써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아사코의 능수능란함을 극대화 시켰다. 따라서 두 여성은 공히 상대적으로 비주류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인물간의 관계를 조율하며 극의 흐름 속에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공통적 위상을 지녔다.

둘째, 현주실과 아키코는 근대적 자의식의 측면에서 신여성으로 이행 해 가는 단계의 여성상이다.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거부감, 봉건 윤리의식을 비판하면서도 여전히 잔존 해 있는 도덕적 이념의 보수성,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이 아닌 주변에 의지하는 수동성 등 가치관의 착종 현상을 보인다. 하지만 현주실은 자신의 주관과 의지를 관철하여 행동함으로써 주체적인 삶을 영위한다. 교육의 힘을 믿고, 봉건제도나 퀴퀴묵은 유교제도에 대한 개선의 의지를 추구한다. 현주실의 임철규에 대한 호감과 끊임없는 지지는 절망에 빠진 임철규에게 용기를 주고, 결국 생사도 함께 할 것임을 다짐하는 사랑 고백으로 이어진다. 아키코 또한 개인적 감정의 유일무이성을 자각하고 「과격한 연애」라는 말에도 굴하지 않고 히사오와의 사랑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주체적 삶을 위한 명확한 의지표명이 드러난다. 다만 아키코의 경우 각성된 의식과 정치적 방향의 형성에 있어서 현주실에 비해 미숙한 양상을 보이므로 피상적으로 개화된 양상이 좀 더 짙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두 여성은 비록 가치관의 착종 현상이 보이기는 하지만 근대적 자의식에 눈뜬 여성이라는 점에서 교집합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셋째, 현주실과 아키코는 각기 가진 이상추구의 방향성의 측면에서 여성상의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현주실은 외부로 향하는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는 이상을 가졌고 아키코는 개인의 행복 추구라는 내부로 향하는 이상을 가진 여성이다. 말하자면, 현주실은 교육을 통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기반으로 나라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밖으로 뻗어 나가는 확장적 성향의 이상을 가진 것이다. 좀 더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인격체로서 개인의, 나아가 민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고 한다. 반면 아키코는 국가발전을 도모하며 밖으로 뻗어 나가기보다는 안정된 사랑의 유지와 사랑하는 한 남자의 아내로서의 만족감을 중요시하는 즉, 내부로 향하는 개인 행복에 이상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이상을 추구하는 여성이었기에 히사오를 저지하여 해외로 사랑의 도피를 꿈꾼 것이다.

한, 일 개화기를 살고 근대교육에 노출되었으며 사랑에 적극적이었던 그녀들의 모습에서 근대적 자의식의 단상을 찾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현주실은 밖으로, 아키코는 안으로 향하는 이상의 지향점에서 그녀들의 차이점도 발견 할 수 있었다.

【參考文獻】

권순중(2006) 「작가의 이데올로기와 역사에 대한 인식-차범석의 희곡 <학살(虐殺)의 숲>과 <손탁호텔>을 중심으로-」(무천극예술학회『차범석 희곡연구』서울 :국학자료원) pp.149-177

김경옥(2006) 「車凡錫 戯曲에 나타난 嚮土의 특성 연구」동신대학교 대학원, pp.9-10

金秀美(1996) 「開化期女性の 近代意識 形成에 關한 研究 -基督敎系統의 女學校를 中心으로-」명지대학교 대학원, pp.46-47

문광훈(2010) 『한국 현대소설과 근대적 자아의식』아카넷, p.338

박용옥(2001) 『한국 여성 근대화의 역사적 맥락』지식산업사, p.257

여성사 연구모임 길박세상 지음(2001) 『20세기 여성 사건사』여성신문사, p.16

林 薰植(1994) 「三島由紀夫의 「鹿鳴館」의 構造—その愛憎の關係を軸として—」(『教育理論과 實踐』,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pp.201-222

조순경, 김영옥, 김은실, 박진숙, 정재서(2003) 『한국의 근대성과 가부장제의 변형』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p.71-72

차범석(1982) 『차범석 제4희곡집 학이여 사랑일레라』어문각, pp.51-140

최경숙, 한세화(1976) 「開化期 韓國女性の 近代意識의 形成」『論叢』28집, 이화여자대학교부설 한국문화연구원, p.337, 355 참조

태혜숙 외 10인(2004)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도서출판 여이연, p.79

鄭世華(1972) 「韓國 近代 女性敎育」(『韓國女性史 II』梨花女子大學校出版部) p.83

石井辰彦(1986) 「鹿鳴館-結末への里程標」(『国文学』昭和61年7月号「いま三島由紀夫を讀む」学燈者) p.94

越次俱子(1983) 『三島由紀夫 文學の軌跡』広論社, pp.14-15

三島由紀夫(2006) 『鹿鳴館』新潮文庫, pp.8-100

三島由紀夫(1984) 『鹿鳴館』新潮文庫, p.355

渡辺美知子(2006) 「三島由紀夫의 『鹿鳴館』論」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p.4

http://cafe.holro.co.kr/?document_srl=688 전통과 인습의 차이 참고

논문투고일 : 2011년 12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1년 12월 20일
 1차 수정일 : 2012년 01월 10일
 2차 수정일 : 2012년 01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2년 01월 20일

 <要旨>

차범석의 『손탁호텔』과 三島由紀夫의 『鹿鳴館』에 나타난 여성상 비교 - 현주실(玄珠實)과 아키코(顯子)를 중심으로 -

한국의 손탁호텔과 일본의 鹿鳴館은 전근대와 근대의 접점에 존재했던 건축물로 이는 곧 탈 전근대를 지향했으며, 서양의 문물을 수용하고 외국 사절들이 머물렀던 숙박의 기능도 겸했던 곳이다.

손탁호텔은 주로 정동의 개화와 인사들이 드나들었고, 이후 독립협회의 주요 무대가 되기도 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鹿鳴館 시대(1883~1889)’라는 시기가 존재할 정도로 鹿鳴館을 중심으로 서구화 정책에 힘을 기울인 흔적이 역력하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상 짧지만 강한 인상을 남긴 손탁호텔과 鹿鳴館을 소재로, 동명의 희곡 『손탁호텔』, 『鹿鳴館』이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며 각 작품의 내용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개화기라는 공통된 역사적 시기의 흐름 위에 각기 작품 속에서 비슷한 비중과 역할을 차지하는 인물상을 알아보는 것은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텍스트 분석을 통해 두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현주실과 아키코의 여성상 비교에 연구 목적을 두려고 한다.

연구 방법은 두 여성의 근대적 자의식과 이상추구의 방향성 측면을 통한 여성상 접근이다. 연구 결과 두 여성 공히 상대적으로 비주류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인물간의 관계를 조율하며 극의 흐름 속에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공통적 위상을 지녔다. 비록 가치관의 착종 현상이 보이긴 했지만 한, 일 개화기를 살고 근대교육에 노출되었으며 사랑에 적극적으로 있던 그녀들의 모습에서 근대적 자의식에 눈뜬 여성이라는 교집합적 요소를 발견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주실은 밖으로, 아키코는 안으로 향하는 이상추구의 방향성에서 두 여성상의 차이점도 발견 할 수 있었다. 향후 희곡 『손탁호텔』의 현주실과 『鹿鳴館』의 아키코를 중심으로 한 여성상 비교는 한·일 개화기 여성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Comparison of Female Figure in 『Sontak Hotel』 of Beom-Seok Cha and 『Rokumeikan』 of Mishima Yukio - Focusing on Hyun Ju-Sil and Akiko -

Sontak Hotel of Korea and Rokumeikan of Japan were buildings that existed on the verge of pre-modern and modern times, aiming for post-premodern, and also adopted the Western culture and had the foreign envoys to stay for accommodations.

Sontak Hotel was mostly occupied by those in favor of enlightenment from Jeongdong, and later became the major stage of independence association.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so called ‘Rokumeikan era (1883~1889)’ which shows the clear efforts in Westernization policies centering on Rokumeikan. It is very interesting, however, that there are plays named after Sontak Hotel and Rokumeikan with such short yet historically strong impression, and such is sufficient to induce curiosity about what those works are about.

It is thought to be significant as a study to investigate the figures with similar significance and roles in each work in the flow of the common historical era of enlightenment period. Therefore, this report intends to study the comparison of female figure of Hyun Ju-Sil and Akiko appearing in these two literary works through text analysis.

The study method shall be female figure approach through the perspective of direction of pursuit of ideal and modern identity of the two women. As the result, both women, despite being relatively non-mainstream, had the common status of adjus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 and exhibiting a strong sense of being in the flow of the plot. Although the entangling of values were found, from these women who lived in the enlightenment period of Korea and Japan, were exposed to modern education, and were active for love, an intersectional element of women aware of modern identity could be found. However, Hyun Ju-Sil aimed outward, and Akiko aimed inward in the direction of pursuit of ideal, showing differences between these two female figures. In the future, the comparison of female figure focusing on Hyun Ju-Sil of the play 『Sontak Hotel』 and Akiko of 『Rokumeikan』 would provide an important basis for understanding the women in the enlightenment period of Korean and Japan.